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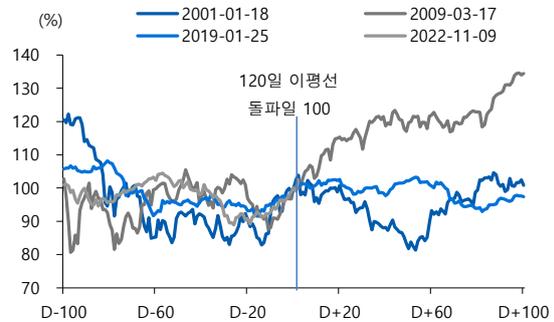


KOSPI, 120일 이평선(경기선) 회복

1. KOSPI, 120일 이평선(경기선) 회복

- KOSPI, 최근 상승 과정에서 120일 이평선 회복. 120일 이평선은 경기선이라 불리면서 장기 추세의 분기선 역할을 함.
- KOSPI, 2000년대 들어 6개월 이상 120일 이평선 하회한 후 처음 회복한 경우 장기 하락세 대부분 중단되는 모습 보임. 상승 추세 전환 시기는 차이를 보임.
- 다만 2,550~2,600pt 수준에 8월 고점대와 1~5월 저점대 저항 존재해 이 가격대 돌파는 쉽지 않을 전망.

KOSPI, 6개월 이상 120일 이평선 하회 후 처음 회복한 시점 전후의 주가 흐름. 장기 하락 추세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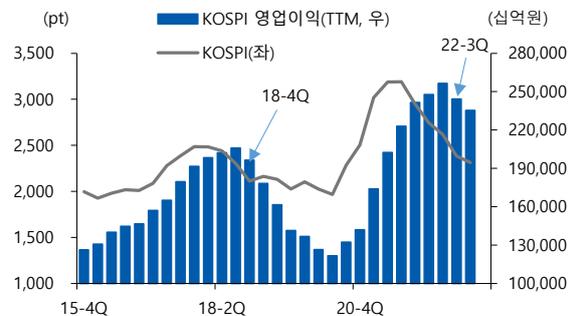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영업이익(TTM) 고점 확인의 의미

- 기업 이익상으로도 바닥권 형성 가능성 높은 모습. 영업이익(TTM) 고점대 형성 후 하락 반전하는 초기에 주가는 바닥권 형성하는 경향 존재.
- 2018년 4분기 영업이익(TTM) 하락 전환 시기에 주가 저점 형성, 2022년 3분기에 영업이익(TTM) 하락 전환해 3, 4분기 바닥 가능성 높음.
- 이는 하락 추세에서 특히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이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분기 영업이익(TTM)과 KOSPI 추이, 영업이익(TTM) 고점대 확인 전후 하락세 중단(2015~2022)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KOSPI, 120일 이평선(경기선)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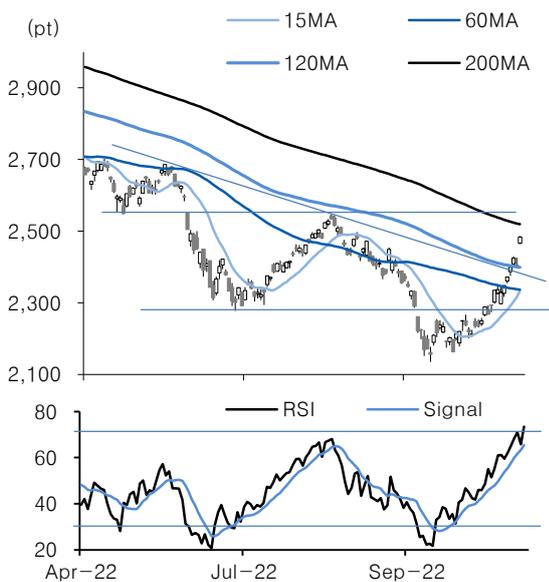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높아지면서 최근 KOSPI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2,400pt 부근의 120일 이평선과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기술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120일 이평선은 경기선이라고 불리면서 장기 추세 변화의 분기선 역할을 한다. 작년 8월 중에 KOSPI 120일 이평선 이탈 후 이번에 처음으로 회복해 장기 하락 추세의 중단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차트2]에서 볼 수 있듯이 KOSPI 기준 2000년대 들어 6개월 이상 장기간 120일 이평선을 하회하고 처음 회복한 경우 상승 추세로 진행된 경우는 2009년 한차례 밖에 없지만 나머지 경우에도 하락세는 중단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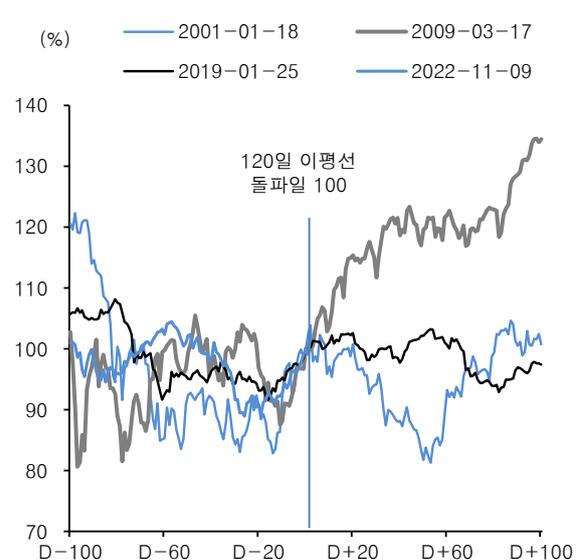
다만 2,520pt 부근에 200일 이평선 저항이 존재하고 2,550~2,600pt 수준에 위치한 8월 고점과 1~5월 저점대의 저항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가격대 돌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래도 2,300pt 회복으로 계단식 하락구조가 중단되었고, 장기 하락 추세를 회복해 이전처럼 저점을 경신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차트1] KOSPI 일봉, 최근 상승 과정에서 120일 이평선 돌파, 200일 이평선과 8월 고점대 저항 근접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KOSPI, 6개월 이상 120일 이평선 하회 후 처음 회복한 시점 전후의 주가 흐름. 장기 하락 추세 중단.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영업이익(TTM) 고점 확인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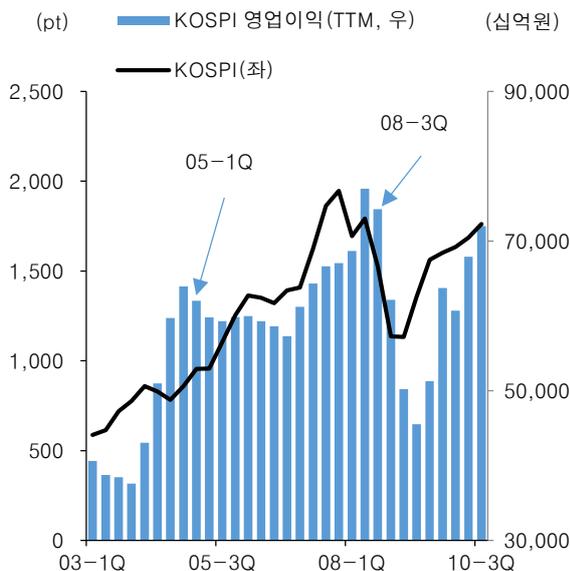
기업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닥권 형성 가능성 높은 모습이다. [차트3]과 [차트4]는 KOSPI의 영업이익(Trailing Twelve Month) 즉 최근 1년 간의 영업이익과 KOSPI 분기 평균치의 흐름을 그린 것이다.

[차트3]에서 2005년 1분기와 2008년 3분기 영업이익(TTM)이 하락 전환했는데, 2005년 1분기 주가는 이미 상승 중이었고, 2008년 4분기에 주가는 장기 바닥을 형성했다. 즉 영업이익(TTM)이 하락 전환 전후해서 주가 바닥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

[차트4]에서는 2018년 4분기에 영업이익(TTM)이 하락 전환했고, 이번에는 2022년 3분기에 영업이익(TTM)이 하락했다. 주가 하락 시에 이익 전망이 빠르게 주가에 반영되어 실제 이익 하락 국면에서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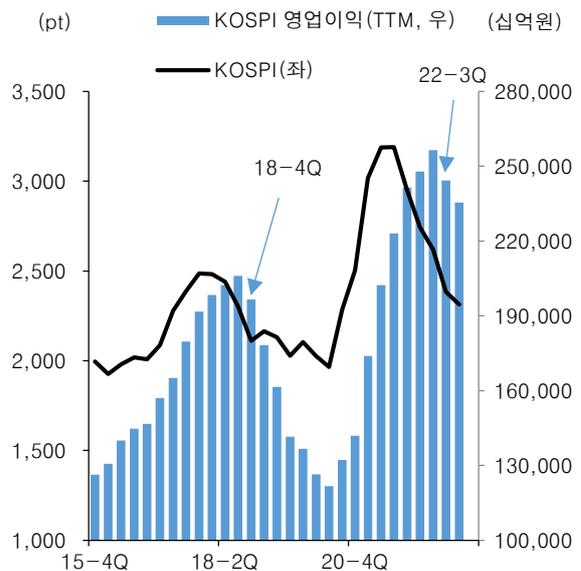
KOSPI가 이미 120일 이평선을 회복했고, 9월에 영업이익(TTM)이 하락 전환했다면 적어도 장기 하락세는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익 전망의 회복속도에 따라 상승 추세 전환 시점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차트3] 분기 영업이익(TTM)과 KOSPI 추이, 영업이익(TTM) 고점대 확인 전후 하락세 중단(2003~2010)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분기 영업이익(TTM)과 KOSPI 추이, 영업이익(TTM) 고점대 확인 전후 하락세 중단(2015~2022)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